

서울시 7급 경제학원론A책형 기준

1. ③

①이행성'불'성립시 무차별곡선이 서로 교차

② 두 재화가 완전대체제일 경우 무차별곡선은 직선이 되므로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는 설명은 틀림

④ 비재화는 적게 소비할수록 더 높은 효용수준을 갖게되므로 상품조합이 원점으로 가까워져야 더 높은 효용수준임

2. ④

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불변

협의통화(M1)은 현금+요구불예금. 현금 100원이 감소하고 요구불 예금이 100원 늘어나는 경우이므로 역시 불변

3. ①

ㄴ. 완전고용이더라도 사무엘슨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점에 머무를 수 있음.

ㄷ. 효용가능'곡선'에 대한 설명임

4. ①

R&D 모형에서 지식은 비경합성과 '배제성'을 갖는다.

5. ④

①음악을 틀었을때의 김씨의 효용의 합이 250으로 평상시 효용의 합인 200보다 크다.

따라서 누구에서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권리가 있든 결과는 음악을 트는 것이 된다.

②권리가 이씨에게 있을 경우, 김씨는 이씨에게 50이상~100미만의 돈을 주어서 음악을 틀도록

부탁할 것이다.

③①과 동일한 사유로 옳은 지문

④①과 동일한 사유로 틀린 지문

6 ①

초기에 균형가격보다 가격상한선이 낮은 상황이므로 초과수요의 상태임.

쌀공급이 소폭 증가시 초과수요가 완화되고,

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은 가격상한선 그대로

공급자 잉여 증가(공급량 증가하므로)

소비자 잉여 증가(소비량 증가하므로)

따라서 자중후생손실은 감소한다.

7. ③

'임의'가 아니라 '완전고용' 국민소득 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할 때임

8. ②

A국의 가격 $(P_x, P_y) = (1, 0.2)$, B국의 가격 $(P_x, P_y) = (1, 0.05)$ 이므로

Y재로 나타낸 X재의 상대가격 (P_x/P_y) 을 구하면

A는 5, B는 20 임.

무역이 일어나면 5와 20 사이의 가격으로 균형가격이 형성됨. 따라서 답은 2번

9. ①

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(IS곡선 우측이동) 이자율이 상승

환율하락압력은 자본유입에 따른 것이므로

중앙은행이 외화를 '매입'(원화를 매각)해야 환율하락압력을 방어할 수 있음.

10. ②

역진귀납으로 풀면, B사는 가,나 중에서는 나를, 다,라 중에서는 라를 선택함

이걸 알고 있는 A사는 나와 라 중에 자기의 이윤이 더 큰 나를 선택함

11..②

정부재정이 균형재정 ($T=G$)이므로 $G=aY$

상품수지(무역수지)가 균형이므로 $NX=0$

이 두 조건과 $C=250+0.75(Y-T)$, $T=aY$, $I=750$, $Y=5,000$ 을

$Y=C+I+G+NX$ 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$a=0.2$

12. ④

① 남아있는 계약기간동안 '지불해야하는(must)' 비용이므로 매물비용임.

② 통과함.

③ 한계수확체감 = 한계비용체증. 따라서 한계비용은 증가함.

13. ④

최종소비자에게 판 금액을 다 더하면 됨.

$$1,000 + 800 + 3,200 = 5,000$$

14. ④

시작점인 형 5만원, 동생 0만원에서

(형 4만원, 동생 1만원), (형 3만원, 동생 2만원), ... 식으로 이동하면서 효용의 합이 가장 큰 조합인 (형 1만원, 동생 4만원)이 정답임.

15. ①

피셔방정식 : 명목이자율 - 실질이자율 = 기대인플레이션

A국의 기대인플레이션 : $6\% - r$

B국의 기대인플레이션 : $4\% - r$ 이므로

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2%p 더 높음

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서 A국의 물가상승률 - B국의 물가상승률 = A국 화폐의 평가절하
따라서 A국의 통화가치는 B국의 통화가치보다 2% 평가절하(가치하락) 됨.

16.③

자본의 사용자비용 = $C = (r+d)P_k$

자본의 한계생산가치 = $VMP_k = MP_k * P$

초기 실질이자율 $r = 0.1$, 감가상각률 0.05

자본재가격 $P_k = 10,000$

생산물가격 $P = 200$

$MP_k = 50 - 0.1K$ 를

자본의 사용자비용과 자본의 한계생산가치를 구해서

두 값을 같게 놓으면

초기 자본량 $K_0=425$

다시 실질이자율을 $r=0.05$ 로 바꿔서 구하면

$K=450$ 이 나옴

즉, 바람직한 투자수준 $I = K - K_0 = 450 - 425 = 25$ 임.

17. ③

① 총공급 충격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'비례관계'를 가져온다.

② 합리적기대하에서 예상치 못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제실업률을 자연실업률보다 하락시킬 수 있다

④ 필립스곡선의 좌측이동이 아니라 우하향하는 필립스곡선상에서 좌측의 점으로 이동한다

18. ③

자동차 수입전 균형 $(P, Q) = (2, 40)$

자동차 수입후 균형 $(P, Q) = (1, 60)$

수요곡선이 직선이므로 수요함수는 $P = -Q/20 + 4$

그래프를 그려서 소비자잉여를 구해보면

수입전 소비자 잉여 = $1/2 \cdot (4-2) \cdot 40 = 40$

수입후 소비자 잉여 = $1/2 \cdot (4-1) \cdot 60 = 90$

따라서 국내 소비자 잉여는 예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.

19. ④

$MR = 64 - 4Q$ (수요함수를 P에 대해 정리한 뒤, 기울기를 두배로 하면 됨)

$MC = 24$

$MR = MC$ 에서 $Q = 10$,

수요함수에서 $P = 44$

이윤은 $PQ - TC = 44 \cdot 10 - 24 \cdot 10 = 200$

따라서 기업 A가 얻는 이윤은 $200/2 = 100$

20. ②

재정확대정책은 수요측 정책이므로 자연산출량에 영향을 줄 수 없음. 즉, 자연산출량은 불변임.